

착한 하천상 시상식

유 장 우

“광덕산 쪽에 가면 물이 좋다던데, 한번 가 볼까?”

아빠의 제안에 우리 식구는 모두 찬성했다. 천안으로 이사 와서 가족들이 편히 쉬다 올 수 있는 물가를 아직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빠의 안내를 들으며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낚시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아저씨들도 보이고 조그마한 축구장도 보였다.

“이 하천 바닥에서 얻은 모래로 축구장을 만든 거야. 그리고 저기 물 내려가는 곳이 보이지? ‘보’ 라는 것인데 물이 적당히 흐를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지. 물 내려가는 곳을 더 넓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좁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축구장까지 잠겨 버리거든. 그것만 좀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하던 물길에 그런 원리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아름답게 꾸며 놓은 꽃밭이 보기 좋았는데 물이 불어나면 모두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웠다.

좀더 길을 가다 만난 다른 하천 옆에는 소들이 살고 있는 목장이 있었는데 물이 검게 변해 있는 것이 소똥을 하천에 버리는 것 같았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물가에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아저씨들이 조심해야지! 소들한테 변기를 만들어 주던가!”

동생이 아는 체를 하며 소리쳤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가 우린 광덕사 쪽에 도착하게 되었다. 큰 냇가가 있어서 가 봤는데 땅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지만 물 쪽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너무 깨끗했다. 난 그 물을 일급수 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았다.

물에서는 아빠가 어렸을 적에나 볼 수 있었다는 쌀 미꾸라지(기름종개)와 토종개구리 다슬기, 달팽이 등 여러 동물들과 물고기를 볼 수 있었는데 내가 가장 호감이 간 동물은 바로 황새였다. 황새는 자신의 흰 색 깃털을 뽐내듯이 목을 쭉 펴고 멋지게 서 있었다.

우린 돌을 들출 때마다 많은 물고기를 봤지만 잡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

도 포기하지 않고 아빠, 나, 인우는 열심히 물고기들을 찾아봤는데 그 때 앞서가시던 아빠가 “잡았다.” 하고 소리쳤다. 우린 얼른 달려가지 않고 살금 살금 다가갔다. 물고기가 도망가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심 조심 물고기의 촉감을 느껴봤다. 물고기는 매끈매끈했다. 물고기가 많이 살고 물이 아주 깨끗한 이런 곳은 흔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돌을 열어 보니, 올챙이도 있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올챙이는 놔 주고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보기로 결심했다. 올챙이를 만져보려다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올챙이가 아니었다. 아빠가 잡은 물고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아주 작은 물고기였다.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쉬웠다.

아빠는 가끔씩 우리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향집 앞을 흐르던 냇가에 대해 얘기해 주시곤 했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집 앞에 흐르던 물이 맑아서 자갈돌과 물고기들이 노는 것이 훤히 보이고 먹을 물이 부족한 집은 냇물을 떠다 먹기까지 했어. 그런 곳이 이제는 없다 했더니 여기서 찾았네.”

우리 가족이 본 광덕산의 물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집이 되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상을 주기로 했다. 상 이름은 ‘광덕산의 착한 하천상’ 이고 상품은 옆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다. 동생이 좋아하면서 분홍색 꽃을 선물이라며 물 위에 떠내려가게 해 주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아름답고 깨끗한 물을 보면 시상식을 해 주기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상을 주게 될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핀 모든 꽃들이 상품이 될 수 있게 건강한 하천이 많았으면 좋겠다.